제 10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12월 7일
강사: 권지연 박사
주제: Korean Treasures in Japan.

예술과 역사는 한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한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특수하다. 한국 예술사에서 일본과 관련되어 현재 제기된 이슈들을 간단히 말해보자. 우선 예술사에서 발견되는 많은 구멍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파괴되었거나 일본에, 개인소장품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에 있는 한국 예술품들은 중국의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예술 역사학자로서 특히 고려 불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80퍼센트의 고려 불화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오직 11점만이 한국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욕 아트 겔러리에서 한국관이 새로 생긴 것을 들 수 있다. 이 안에 불경이 하나 있는데 이는 수제로 금으로 쓰여져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불경은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다시 한국의 우수성으로 인해 중국으로 다시 수출된 대표적인 예술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불경도 발견된 55개점중 37개가 일본에 있다.
이러한 문화재에 관련하여 강한 반일 정신을 표명하는 움직임이 국내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재 수난사'라는 책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인들의 잃어버린 예술품에 대한 상실감, 일본의 피해자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결 해야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일본인들이 한국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개인적으로 만난 현대 예술 역사학자는, 일본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실제로 일본 내의 한국 작품들이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 내에 공식적으로 35000점의 예술 품이 있는데 이는 정말 공식적인 숫자로서 개인 소장품을 합친다면 3500000점이 될 것이다. 보통 공식적인 숫자는 10%정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왜 개인 소유자들이 이러한 한국 예술품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세금문제와 안전 문제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예술품에 값비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게다가, 1965년 한일 조약때 이러한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몇몇 일본인은 한일 조약으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일부만이 개인의 기부의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온다. 그 예가 Yuichi collection이라든가 Hamaguchi Collection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국제적인 측면에서 정부간 레

벨을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정치적인 해결 방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선례로서 나찌가 가져간 유럽에서의 예술품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해결이 매우 어려웠다.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NGO를 통한 민간인 루트가 있다. 즉, 각 개인에게로 어필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의지로서 기부를 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는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인들은 한국내에 있는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회의 같은 것을 열어서 일본인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재개혁을 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현재, 기부를 하기 위해서도 기부세라는 것을 내야한다. 이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 자신들의 문제도 있다. 그들은 문화를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일본인들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그 예술품에 대해 값을 지불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시대에 한국의 고고학은 일본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인으로부터 고고학 기술들을 배웠다. 결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전수한 기술로 인해 식민지 시대 자신들의 유물들을 발굴당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이 한국에 남아 있다는 것에 있다. 현재 한국의 박물관에 많은 부분이 식민지 시대에 발굴된 것이다. 한국 현대 고고학의 시작은 식민지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흑백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유네스코에서 코노라는 일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인의 일본인이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하는 의식은 잘 못된 것이다. 물론 임진 왜란시기에 훔쳐간것도 있지만,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사간 것도 있는 것이다. 즉 한일이 같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반일 감정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일간의 관계를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협상 카드로서 뒤로 재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문화는 정체성확립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 일본 내의 이러한 예술품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비한 상태로, 현재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몇몇의 교수님들이 이러한 예술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규슈대학교 등이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서로 비교함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화된 사회에서 정체성의 위기가 온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Genuinely Korean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러 한국을 찾아 오지 않는다. 정말로 한국적인 것을 보러 한국에 찾아 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인 것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는 주변 국가들 중국, 일본에 대해 그리고 한,

중, 일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